

# 커뮤니티댄스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실천적 의미 연구

황 정 옥\*

## 목 차

Abstract	IV. 무용교육의 지속적 실천·커뮤니티댄스
I. 서론	V. 결론
II.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시대적 의미	참고문헌
III. 예술교육의 지속과 변화	

## Abstract

### A study on practical meaning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community dance

Hwang, Jeong-ok · Kyungsoo University

This Study focused on the equity in terms of social and ethical dimension in the personal and community network while facing the fact that the cultural value is focused in terms of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values presented by the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reason why the cultural value can be supported originates from the belief that culture and arts can contribute to improving the goal of life as the existence independent from social dependence.

The necessity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problem of human community, lies in the settlement of various problems caused in the course of adaption to life as a possession. Such problems originate from the lack of judgment of human as well as the severance of relationship between person and person, person and society or community, tradition

\*\* 경성대학교 무용학과 외래교수, 대구가톨릭대학교 공연예술학과 박사과정  
논문투고일: 2013. 1. 20 심사일: 2013. 2. 20 게재확정일: 2013. 3. 8.

or contemporary, human and nature. Arts education pursues recovery of relationship by improving judgment of human through emotional recognition and facilitating plural thinking. Recovery of relationship is regarded as the artistic practice to recover social equity and community dance is regarded to play such role in dance education.

The core values of ecological and environmental society such as development, growth and preservation are the values that can start from the search of sense of community as the source of successful life through improvement of internal value of human, not the value that can be improved by external goal. It is to recognize their problems as our problems and community dance approach this in terms of equity institutionally. And it facilitates the systematic thought of participants so that we can live in the life of culture community and ecological community beyond the construction of network of cultural targets from the social interest of issues and dispute in its practice. Accordingly, community dance is meaningful in terms of practic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s it pursues expansion of equity to ecological community beyond the social equity of formation of cultural community, and ecodance can be regarded as the research area of community in this context.

**key words:** sustainability,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quity, relationship, plural thinking, sensible recognition, communitydance, ecodance

**주요어:** 지속가능성, 지속가능발전교육, 형평성, 관계성, 다원적 사고, 감각적 인지, 커뮤니티댄스, 에코댄스

## I . 서론

세계는 인류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진화의 과정을 거듭하고 있다. 경제적 가치와 지식의 효용성이 지배하던 사회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기구인 유네스코는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 의제를 상정하였다. 현재의 문제와 미래의 문제를 동시에 공유하면서 인류 공동체의 발전지향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육적 실천을 강조하는 것이다. 지속가능발전교육에서 제시하는 교육적 실천은 현재의 교육 패러다임과 동떨어져있지 않다. 이미 사회적, 문화적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에서 추구하고 있는 교육 패러다임을 실천해 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유네스코에서 이와 같은 의제를 상정한 것은 전 인류가 공동의 목표로 문제를 극복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인식과 가치를 공유하고 실천을 촉진하는 것이라 하겠다.

블록화되어 버린 세계는 인식의 전환을 갈구하고 있지만 아직도 힘의 우위를 가진 거대 담론에 의해 문화의 획일화, 생태·환경의 파괴, 경제적·정치적 박탈감 등 많은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 결국 인류가 극복해야 할 문제를 공유하는 관점에서 교육은 사회적 형

평성의 문제를 인식하고 개인의 발전 뿐 아니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인간의 내면적 가치를 깨닫고 실천 의지로 이행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오늘 날 교육의 의무이며 기대이다. 예술교육은 인간의 내면적 가치의 향상을 통해 행복한 삶의 실천 의지를 일깨우며, 문화 작용으로서의 사회적 효용성과 형평성의 문제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즉 예술교육이 지니고 있는 관계성 회복, 다원적 사고와 더불어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 사회적·정치적 목표의 내재적 전환이 인간의 실천 의지를 북돋운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이 담고 있는 태도와 가치를 바탕으로 문화 작용으로서의 무용교육의 의미와 커뮤니티댄스 실천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지속가능발전교육에 관한 선행 연구는 실천 전략과 이행 방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2010년도에 열린 유네스코 제 2차 세계예술교육대회에서 선포된 ‘서울 어젠다 : 예술교육 발전 목표’<sup>1)</sup>에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취지가 내포되어 있고 이와 같은 관점에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실행하기 위한 교수 전략이나 교육 내용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목표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 커뮤니티댄스라고 보았다. 따라서 예술교육이 갖는 조화와 균형의 문제와 관계성 회복이라는 대칭적이고 평등한 관계 맺기의 예술적 효용성에 주목하면서 교육적 혜택으로서의 제도적 접근 방식, 관계성 회복을 위한 네트워크의 다양화 관점에서 커뮤니티댄스의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본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 II .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시대적 의미

근대사회 이후 지식기반사회를 거치면서 인간은 자연과 조응하는 관계에서 벗어나 자연을 극복하고자 하였고 인간은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교육을 통해 자기 개발을 지속화했다. 근대적 가치는 문명의 이기심을 가속화시키며 문화의 다양성을 저해하였으며 에너지 고갈과 같은 환경적 문제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안에서 계층 간의

1) 예술교육 발전 목표는 세 가지로 제시된다. 첫째, 깊이 있는 교육을 위하여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요소로 예술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한다. 둘째, 예술교육 활동 및 프로그램의 기획 단계부터 실행단계에 이르기까지 질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셋째, 오늘 날 세계가 직면한 사회적, 문화적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도록 예술교육의 원리와 실천을 적용한다이다. 여기에서 세 번째 목표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제시되고 있으며 예술교육이 실천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정연희(2011)는 선행연구를 통해 밝히고 있다.

문제를 심화시켰다. 근대사회가 개인에게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개인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면 탈근대사회는 사회와 인간의 괴리, 사회적·경제적 문제 등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의 집단적 복지에 관심을 기울인다. 누구나 삶의 질을 누려야 하고 행복해야 할 권리를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사회, 즉 지속가능한 발전을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누리고 지향해야 할 가치임을 내세운 것이다.

유네스코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지속가능발전의 등장과 함께 대두되는 현 사회의 공유된 개념 체계로 아젠더로 제시되었다. 경제적 가치에서 시작된 이와 같은 함의는 인류 공동의 당면 문제로 환경 문제, 경기 침체, 에너지 고갈, 기후 변화 등 인류 및 지구 생태계의 미래가 지속가능할 것인가에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은 지속가능성의 세 가지 위상 즉, 환경적 지속성environmental sustainability, 경제적 지속성economic sustainability, 사회적 지속성social sustainability라는 세 가지 축을 이루며 상호성을 지니고 있다.

“지속가능성”의 개념은 생태계의 다양성과 생산성을 유지함으로써 인류의 장기적 복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생태적 차원에서 출발하였으나 그 이후 인간 삶의 거의 모든 측면에 적용될 수 있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즉, 빈곤퇴치와 경제성장 등을 포함하는 경제적 차원과 사회통합 및 사회정의 등을 포함하는 사회적·정치적 차원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이면서 상호작용적인 개념으로 진화하였다(정연희, 2011:53). 지속가능발전은 1987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가 발간한 <우리 공동의 미래> 보고서에 의해 “미래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정의되었고, 이후 이 정의가 가장 널리 인용되었다. 그러나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경우 아직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일반적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초기에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일반적 정의에 대한 공동의 합의에 이르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최근 들어 열린 개념으로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지역화localization나 맥락화contextualization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추세이다. 다만 교육과 학습이 지속가능발전의 환경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측면의 상호연관성을 인지해야 한다는 점은 합의되고 있다(정우탁, 2010:9).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지속성이라는 세 가지의 축에서 문화는 사회적 지속성의 범주에 해당된다. 즉 사회적 지속성에 문화적 가치와 태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세 가지 축에 문화적 가치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병준(2011)은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네 가지 차원으로 확장하면서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와 생활양식, 태도 및 학습적인 부분을 문화적 차원으로 추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가치와 지속성은 기술적인

부분으로 회복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는 까닭에 결국 우리 인간의 소비 패턴, 생활양식의 변화와 같은 문화적인 차원들에 대한 진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문화는 인간에 의해 형성되고 형성되어진 문화가 현재의 문화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완료된 것, 결과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문화는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며 과정이자 현재진행형인 것이다. 인류의 역사는 문화의 역사와 같이 진화해 왔다. 넓은 의미에서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은 결국 인류 문화의 지속가능한 현재와 미래에 대한 문제이다. 따라서 협소한 의미로 문화적 가치가 해석되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즉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 정치적, 환경적 차원에서 해결 될 수 없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개인적 차원에서 문화는 삶의 과정이며 문화적 행위의 연속이다. 따라서 삶을 위한 교육인 것이고 공동체 구성원으로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향상시키는 의식의 전환인 것이다. 이재영(2011)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을 ‘교육적 비전’과 ‘실천적 역량’을 추구하며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인간의 삶 전반에 걸친 질적 향상을 가져오는 가치, 태도, 실천에 대해 고민하는 “삶을 위한 교육의 비전이나 리더십”과 연결 짓고 있다. 삶을 위한 교육의 비전이란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인격을 형성하는 과정 속에 인간다움의 추구를 통해 획득될 수 있는 것이다. 문화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자신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적 가치 속에서 발현될 수 있는 리더십은 문화의 가치를 왜해하지 않고 인간의 역사성을 문화적으로 이행하는 실천이자 자신의 삶을 형성해가는 의지이다.

현재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정도의 종류의 성장, 바로 거기에 교육이 있다. 기술의 습득, 지식의 소유, 교양의 획득이 목적이 아니다. 그것들은 성장의 징표이며 성장을 지속해나가기 위한 수단이다(Dewey, J. 2010:209).

지속가능발전의 실천으로서의 교육은 미래를 위한 준비이다. 그러나 삶의 목적과 떨어진 교육은 미래의 삶에 필요한 지식, 습관, 정보들의 습득, 타자에 의한 의존에 빠지게 된다. Dewey, J.(2010)는 인생의 중요한 업무로서의 교육의 과정은 젊은이가 사회적 의존으로부터 해방될 때 끝난다고 보았다. 또한 교육은 나쁜 경험에서 더 나은 경험으로 나아가는 연속적인 경험의 경과이기 때문에 교육은 도덕적 성장과 관계를 맺는다고 본다. 이와 같은 교육적 태도는 문화의 역사성과도 함께 하는 것으로 인류의 문화가 항상 더 나은 경험으로 진화를 거듭해 온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외적인 필요에 의해 습득되는 지식이나 활용되는 지식이 아닌 경험을 통해 성장을 추구하는 현대 교육의 비전은 문화와 예

술교육의 비전이기도 하다.

칸트에게는 최고의 가치를 지니는 것은 동물성, 인간성의 소질이 아니라 인격성의 소질이다. 인격성의 소질은 도덕 법칙을 존경하는 능력이며, 도덕법칙에 따르는 도덕 감정이다. 사회와 문화가 발전하는 것은 도덕성이 고양되고 그 속에서 자유로운 선택 의지가 인간을 인격적 존재로 실현하는 데에 놓여 있다(이정은, 2012:50).

도덕적 성장은 윤리적 차원에서 다루어진다. 미래사회와 현재사회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다움의 추구이고 윤리적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지속가능발전교육에서 문화가 갖는 위치는 개인과 공동체 문화라는 관계망에 있어 사회적·윤리적 차원의 형평성의 문제일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문제의 극복은 개인이 사회적 의존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인간의 삶의 목표에 관한 문제이며 공동체에 관한 인식이기도 하다. 결국, 문화는 공동체 삶속에서 형성되어 온 가치, 이념, 제도, 생활양식 등의 총체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인지행위는 어디까지나, 일정한 느낌이 일정한 인지형태를 취하게끔 작용하는 문화적 학습과정의 결과이다(Fromm, E., 2012:121).

Arnold, M.(1869)는 문화란 세상에서 말과 생각으로 표현된 것 중에서 최고의 것으로 도덕적이고 사회적이며 유익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고양시키는 효과를 제공한다고 보았다. 인류의 전반적인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순수 예술에 접근 가능해야 한다고 믿었다. 예술이 가진 교화적인 영향력이 없다면 사회는 '무정부(anarchy)'상태에 빠지게 된다(Alexander, V. D., 2003:106).

따라서 지속가능발전교육에서 목적하고 있는 사회적·윤리적 차원의 형평성의 문제는 문화적 학습의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인간의 창조적 인지 행위의 결과인 예술 교육을 통해 강화될 수 있는 것이다.

### Ⅲ. 예술교육의 지속과 변화

예술교육은 예술 안에서의 교육에서 예술을 통한 교육으로 진화하였고 오늘 날에는 삶을 위한 교육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제는 소수의 예술가 혹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집단의 전유물로 예술이 존재하지 않는다. 동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개개인의 삶의 의미를 확장하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술교육을 필요로 한다. 지속가능한 미래는 개인의 삶의 안녕과 행복 추구 뿐 아니라 개인이 속한 공동체의 안정과 번영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이다. 교육은 개인의 삶을 조화롭게 하는 것, 인간답게 사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고 교육을 통해 인간은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며 자기 목적을 가지고 스스로의 삶을 개척한다. 이때의 개척은 개인의 이기심이나 욕망, 명제를 따르는 행위가 아니라 내적 가치를 지향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이 행복하고 삶의 의미를 관철시킬 수 있는 의지를 가지는 것 못지않게 개인이 소속된 공동체의 상호성과 발전 또한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 세대가 그들의 미래를 형성하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삶의 질을 지키는 방식으로 사회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다. 결국 세대간, 국가간, 문화간 형평성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이다(이선경, 2010:67 재인용).

근대 사회에서 우리 사회는 관계성이 전복되었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 개인과 개인의 관계,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서 공감과 공유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또한 전통과 현대의 관계에서도 전통문화가 자가발전하기 보다 왜곡되거나 배타시되는 현상이 초래됐다. 각 나라의 문화가 일명 선진국이라 대변되는 국가에서 만들어낸 문화와 문명에 맹목적으로 빠져드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본질적으로 문화는 절대적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들의 문화에 우리의 문화가 귀속되거나 외면되는 상황이 발생되면서 문화적 관계성들이 단절된 것이다. 또한 교육은 삶의 공간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상과 동떨어진 지식과 학문만을 강요해 왔다. 교육은 성장하는 과정, 그 자체이며 삶이기도 하다. 학습은 삶과 떨어져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속에서 행해지고 삶에 의미를 가져다준다. 획일화되고 명제화 된 정의와 개념을 교육한 시대에 살아 온 인간은 사회화를 통해 사회에 귀속되었고 사회가 요구하는 생산물과 가치를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에 길들여졌으며 사회적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소유는 사물과 관계를 하며, 사물이란 구체적이며 묘사할 수 있는 것이다. 존재는 체험과 관계하며, 체험이란 원칙적으로 묘사할 수 없는 것이다(Fromm, E., 2012:128).

근대는 소유를 통해 존재양식이 결정되는 사회였다. 인간이 실천 의지를 지닌 개별적인 존재로서 살아가기 어려운 사회였던 것이다. 존재적 삶을 위해서는 세상에서 소외된 삶, 즉 소유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의지를 지녀야 한다. 소유에서 벗어난 행동은 결국, 나 자신을 나 자신의 행동의 주체로 체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소유적 존재로서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 문명이 인간의 욕구를 통제할 때 인간은 비로소 개인에게 부여한 통제와 억압을 인식한다. 문화가 도덕성과 능동성을 지니고 있다면 문명은 반대에 위치해 있다. 문명은 문화의 불가피한 해체 단계로서 문명화된 인간은 더 이상 미래 문화를 가지지 못한다(Spengler, 1918)<sup>2)</sup>. 개인이 누리고자 하는 가치와 의지, 인간관계를 사회적 틀에 귀속시킴으로써 공동체는 권력을 가지게 되고 다른 공동체에 또 다른 힘으로 작용하고 개인의 인간관계마저도 통제하게 된다. 이는 하나의 집단이 형성한 담론에 의해 제도가 형성되고 사회적 질서가 유지되는 과정 속에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 질서로부터 인간이 느끼게 되는 심리적 통제와 존재 방식의 강요는 한 개인의 불행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공동체의 문제로 야기된다. 소유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려는 욕망과 맹목적 의지, 심리적 통제로부터 빚어지는 편집증이 그것이다. 그리고 소유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마저도 파괴시켜버렸다. 여기에서 인간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그것들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즉 삶의 목표에 대한 의식의 문제이며 사회 질서가 만들어 놓은 규범과 틀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행동의 주체로 삶을 유지하고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삶의 목표에 대한 미적 태도는 위협적인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거의 보호해주지 못하지만 많은 것을 보상해 줄 수 있다(Freud, S., 2008:44).

인간의 존재는 고유한 것으로 사회의 질서와 통제를 넘어 인간다움을 추구할 때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인간다움의 추구는 혼돈과 혼란 속에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영위해 나갈 것인가라는 삶의 과정을 통해 인격을 완성해 가는 인간의 본성이다. 완전하지 않기에 인간은 성장하는 것이고 인격의 형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에서 예술과 문화가 작용하게 된다. 사회 질서와 규범이 옳고 그름의 문제로 규정되고 판단될 수 있는 것이라면 문화와 예술은 그것과 다르다. 인간이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듯 문화와 예술 또한 고유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와 예술은 어떠한 외적인 목적을 위해 만들어 지고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와 함께 진화해 온 창조적

2) 원승룡(2007:47)에서 재인용



행위의 결과이다. 때로는 예술과 문화 또한 사회적 질서와 힘의 논리에 의해 사회 구성원 간의 계층을 구분 짓는 잣대로 작용하거나 다른 문화의 포용보다는 포섭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기도 하였지만 이는 문화와 예술을 어떠한 외적인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문화와 예술의 본질적인 속성이라 할 수는 없다.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의 삶을 존중하는 모든 인간의 의무이다. 그러나 흔히들 문화에는 '왜'가 없다고 한다. 문화에는 발생의 근거는 있지만 (보편적) 정당성의 근거는 없기 때문이다...(중략)...우리가 문화에서 보편성을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문화의 보편성이 아니라 개방 또는 관용과 같은 형식적 보편성일 뿐이며 우리가 인간으로서 목적해야 할 유일한 절대적 문화를 함축해야 할 필요는 없다(원승룡, 2007:64-65).

문화는 공동체 삶과 직결된 것으로 공동체의 역사이자 전통이며 공동체의 정체성이다. 옹고 그림의 가치로 판단하지 않는 문화에 대한 태도는 개별 공동체의 독자성과 고유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수평적 구조에 놓여진다. 즉 문화는 공동체의 상호성과 대칭적인 관계성을 유지하는 기저로 작용하며 사회적 형평성을 회복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미래는 문명의 발달이라는 사회 구조가 낳은 근대적 가치인 소유의 가치로부터 실존적 존재의 가치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이다. 소유의 가치가 관계성을 단절시켰다면 예술은 다원적 사고를 통해 관계성을 극복할 수 있는 열쇠이다. 예술은 하나의 대상을 두고도 다양한 관점으로 대상을 감지하고 지각하며 다원적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창작 활동을 통해 드러나는 결과는 맞고, 그림의 기준에 따라 판단되지 않는다. 오히려 감성에 의해 독자적인 의미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고 대상 간의 관계성을 발견하게 된다. 하나의 동일한 대상물은 감지된 감각적 인지 과정을 거치면서 각기 다른 형태나 색채, 움직임, 리듬 등 예술적 요소로 창작 과정의 결과로 소통된다. 하나의 대상에 몰입하고 집중함으로써 유연하고 다원적인 사고를 통해 다양한 의미 즉, 다원적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다. 하나의 명제로 제시되는 의미가 아니라 다양한 초점에서 바라보는 대상, 그리고 대상 간의 관계성이 창작 결과에 투영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일상에서의 행위와 예술적 행위의 공통점과 관계성을 인간은 상징화와 소통이라는 과정을 통해 또 다시 발견하게 된다.

근대사회에서 인간이 소유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파편화된 현실, 관계성이 단절된 현상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은 판단력의 결여 때문이다. 인간의 판단력은 감성에서 비롯된다. 논리나 기준을 제시해 준다고 믿는 이성만 직선적 사고이다. 이에 비해 예술은 와선적이고 통합적인 감성적 사고이다. 왜냐하면 예술은 눈

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감성으로 느끼게 해 주기 때문이다(한혜리, 2011: 27). 예술을 통해 발달되는 감성은 감각적 인지로 경험적 인식이다. 대상에 대한 감각적 인지는 감정을 야기하는 개인적 의미 부여에 가치 판단이 내재하여 있기 때문에 사회적 감각이며 지각을 넘어 인지인 것이다(한혜리, 2011:57). 따라서 감각을 일깨우는 예술은 세상과 소통하는 시작점이자 문제와 현상에 대한 판단력을 제공하는 원천이 된다. 즉, 인간의 올바른 판단력을 바탕으로 하는 실천적 의지는 인간의 감성을 통해 깨우쳐지는 것이다.

예술의 감각적 인지를 통해 학습된 다원적 사고는 삶(일상)에 초점을 둔 문화, 문화 다양성 확산 뿐 아니라 전통과 현대의 관계,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각기 다른 개별자들의 집합체인 공동체는 개별자 간의 관계망 속에서 유지되고 발전되며 관계망의 발전은 공유된 가치를 상호소통하며 확산시키는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공동체의 정체성인 문화는 현재의 삶과 맞닿아 있으면서 공동체의 역사와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의 문화유산과 현대문화는 동등한 존엄성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예술교육에서 전통과 현대의 문화는 문화와 예술의 순환 구조 속에서 계승되고 발전된다. 전통과 현대 문화의 관계 회복은 문화적 기억으로 알고 있는 그 자체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으로 재현하고 실천하는 동시성을 바탕으로 최고의 창조 행위인 예술을 통해 촉진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생태론적 세계관에 의하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별개의 객관적 실체가 아니라 전체 관계의 그물망으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작용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진화하고 우주의 궁극적 생명과 합일하는 존재이다(유명만, 2006:22). 이와 같은 가치는 탈근대사회의 핵심 가치로 자연을 위협의 대상,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문명이 자연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근대사회 가치의 변화를 요구하는 개체론적 패러다임에서 관계론적 패러다임<sup>3)</sup>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자연과 인간을 하나의 관계망 속에서 바라보는 이와 같은 의식은 동양의 일원론과 상통하는 것이다. 이는 주체와 객체의 대립적 관계를 부정하는 것으로 예술에 있어서는 관조를 통해 회복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관조할 때에는 대상과 사람만 있을 뿐 그 밖의 어떤 사물이나 이론과도 관련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관조는 대상을 미적 대상으로 만들 수 있다(한혜리, 2011:23).

사회의식의 패러다임이 소유에서 존재로, 기계론적이고 개체적인 세계에서 생태론적이고 관계론적인 세계관으로 변화하였듯이 예술교육 역시 예술을 통한 교육으로 변화 한 오

3) 유명만(2006)은 기계론적 세계관과 생태론적 세계관을 개체론적 세계관과 관계론적 세계관으로 설명한다.

늘날 문화와 예술에 있어서의 교육은 예술작품을 경험하는 것, 문화적으로 접근하는 것, 예술 실천의 상호보완적 관계<sup>4)</sup>를 지닌다. 문화적으로 개방적인 태도를 기르는 이와 같은 예술교육의 실천 방식은 예술적 실천을 통해서 강화되고 발현되는 것으로 개인적인 문제를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문맥에 놓음으로써 문화적인 독자성을 획득하는 것이다. 이처럼 문화에서 갖는 예술교육의 가치는 다원적 사고에서 비롯되는 관계성 회복<sup>5)</sup>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점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특징과도 맥락적으로 같이 한다.

ESD의 가치는 경제체제, 정치·정책 체제, 문화적 동기화 체제, 사회 공동체로 요약된다. 여기서 ‘더 지속가능한 가치관’은 적어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하고, 미래 세대들의 인권에 대한 존중과 세대 간 책임을 중시하며, 지구생태계 보호와 복원, 그리고 다양한 생명공동체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세계의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공동체의 평화의 문화를 유지하는 가치를 가져야 한다(신동원, 2010:21).

감각적 인지를 통해 체험화 된 지식으로서의 예술교육은 지식들을 조합하고, 연결하거나 확장한다. 이때의 지식은 생태론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확장되는 것으로 자신이 발견한 지식을 세계의 구조 속에서 공유하고 관계를 맺는다. 이는 외적인 목적의 의해 학습되는 지식의 소유가 아니며 사회적 의존에 필요한 도구로서의 지식이 아닌 것이다. 예술교육은 자기 목적성 교육으로 다원적 사고를 길러주고 위협과 다양성 그리고 상호의존성이 증가하는 세계에서 물질보다 인간 정신의 고양에 초점을 맞추는 의식의 변화를 추구하는 교육인 것이다.

#### IV. 무용교육의 지속적 실천·커뮤니티댄스

20C 예술의 요소는 감각, 상징, 소통이다. 무용 또한 예술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이와 같은 요소를 지니고 있다. 오늘 날 예술이 삶을 위한 예술로 변모하였듯이 무용은 인간의 삶에 의지에 기여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 감각을 일깨우고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무용은 교육적 위치를 확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Ruskin, J.은 “예술과 자연은 육체적

4) 2009년도 유럽연합에서 제작된 학교 예술교육에 관한 보고서에서 발췌

5) 정연희(2007)는 미술교육의 내재적 원리의 전환으로 관계성 회복에 기반을 둔 미술교육을 주장하면서, 자연, 전통, 삶 등과 미술의 관계성을 회복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의 배경에는 근대 문화 패러다임에 의해 단절된 세계와 타자, 자연과 문화, 전통과 현대 등의 관계성 회복의 필요성이 있다.

삶에 해독제가 되고, 예술 활동은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제가 된다”고 생각했다(Alexander, V. D., 2003:106). 취향의 전환을 꿈꾸던 공연 무용Concert Dance에서 무용은 예술 활동에 참여하고 경험하는 참여무용Community Dance<sup>6)</sup>로 공동체적 삶 앞에 서있다.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은 미래 상상력envisioning, 파트너십partnership, 비판적 사고와 반성critical thinking and reflection, 의사결정 참여participation in descision-making<sup>7)</sup> 체계적 사고systematic thinking에 초점(정연희, 2010: 51 재인용)을 두고 습득할 것을 제시한다.<sup>8)</sup> 여기에서 체계적 사고와 시스템적 사고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데 Capra(1992)는 시스템적 사고의 특징을 부분에서 전체로, 대상에서 관계로, 구조에서 과정으로, 객관적 지식에서 맥락적 지식(이선경, 2010:70 재인용)의 전이로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스템적 사고는 사회적 형평성을 기반으로 하며 문화적,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차원에 두루 걸쳐있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또한 동시대에 살고 있는 세대 간의 형평성, 생태적 형평성을 포괄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때의 생태적 형평성은 환경적·문화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즉 자연과 인간의 관계성에서 비롯되는 형평성의 문제 뿐 아니라 다문화 사회에서 겪게 되는 문화생태계의 형평성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공동체가 단지, 체제 이전의 사회와 국가를 의미한다면 자연과의 조화와 공동체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인류의 오래된 삶의 방식이다. 자본주의 산업사회를 지나 후기 산업자본주의 생산체계에서 공동체의 가치와 함께 ecology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주목받는 이유는 오염과 낭비가 없는 비산업주의적 사회발전에 대한 희망 때문일 것이다(한혜리, 2011:20).

무용교육에서 지속가능성의 실천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것은 커뮤니티댄스이다. 커뮤니티댄스는 공동체의 대칭적 관계를 중요시 여기며 양방향적인 상호성을 전제로, 개인 혹은 공동체 구성원이 지니고 있는 논쟁, 이슈에 관심을 기울인다. 문화적 환경 속에 살고 있는 공동체 구성원인 개인이 개인의 고유성을 박탈당하지 않으면서 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공유하는 ‘공동체 의식 찾기’가 무용교육에 있어서는 커뮤니티댄스인 것이다. 협력

6) 한국무용교육원(2012), 커뮤니티댄스란 무엇인가, 서울 : 영일문화사.

7)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으로 말하기도 한다(이선경, 2010: 70).

8) ① 미래지향적 사고 : 이해관계자들을 대안적인 미래를 만들고 실현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시킨다. ② 비판적 사고 : 개인의 현재 결정 및 행동의 적절성과 전제에 대해 평가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③ 체계적 사고 : 총체적인 변화에 대한 이해와 촉진을 도모한다. ④ 참여 : 모든 사람이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위한 행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한다(Unesco introductory note 2007).

partnership과 혜택으로서의 커뮤니티 댄스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혹은 소수자인 사람들까지도 제도적으로 무용의 혜택을 누려야 함을 전제로 한다. 이는 형평성equality의 문제로 예술적 체험 기회의 확장 뿐 아니라 생태, 환경사회에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문제나 문화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의 문화와 가치를 형성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태도와 가치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아트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인간의 내면적 가치의 향상을 통해 성공적인 삶을 지속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커뮤니티댄스의 역할이자 기능인 것이다. 발전, 성장, 보전이라는 생태, 환경사회의 핵심적 가치는 외부적 목적에 의해 향상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내면적 가치의 향상을 통해 성공한 삶의 원천으로 공동체 의식 찾기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가치이다. 즉, 소유적 가치가 아닌 실존적 존재자로서의 삶을 이어가고 삶의 목표를 성장의 과정으로 여기는 태도가 필요한 시대인 것이다. 삶의 과정성은 감성적 인식과 미적 문제해결력을 통해 삶과 연관된 의미 구조를 총체적으로 체험하면서 얻어지는 정체성 형성이다. 결국 삶의 목표는 미적 태도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커뮤니티댄스는 예술적 체험을 통해 삶의 의미와 과정성에 다가선다. 예술적 체험은 감각적 인지를 활성화 시키는 것으로 커뮤니티댄스는 예술형태의 무용을 와해시키지 않으면서 일상 생활 속에서 감각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문제들을 발견하고 극복하는 의지를 가져다주는 실천 활동이다.

커뮤니티댄스는 사회적 논쟁과 쟁점을 찾아내고 이를 예방,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의 예술적 실천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커뮤니티댄스 전문가Dance Animateur가 사회 환경을 파악하고 문화적 자원Recourse탐색을 선행 연구로 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원들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라는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네트워크는 단순히 인적·물적 자원을 연결시키거나 자원에 속해 있는 인적 자원들 간의 파트너십 강화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문화적 자원들이 어떤 관계망 속에서 연결되어 있는지를 찾아내고 재구조화한다. 그리고 구조를 만드는 목적은 참여자들의 공유된 문화를 어떻게 생산하고 지속화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둔다. 결국, 커뮤니티댄스에서 말하는 네트워크는 문화적 자원·대상의 관계성에 기반 하는 것이며 문화적 관점에서 가치를 논하고 의미를 생산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관계망의 연결과 구조화는 문화적 자원을 대상으로 하지만 개인이 속해 있는 공동체적 삶의 확장이란 측면에서 커뮤니티댄스 참가자들은 개인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가치<sup>9)</sup>와 의미의 대상<sup>10)</sup>과 관계망을 형성하여야 한다. 결국 문화적 공동체에서 생태적 공동체로 참여자들의 사회적 관심이 이동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커뮤니티댄

9) 발전, 성장, 보전, 공유

10) 전통, 자연, 문화, 예술 등

스가 생태적 공동체에 직접 참여하는 현장 실습 모델을 보여야 하는 이유는 인류를 보다 거대한 생물권의 한 요소로 볼 줄 하는 시대의식을 교육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식은 가치나 효용성에 우선하는 존재에 의미를 두는 사상이다. 그리고 생물권 안의 모든 것이 수평적 관계를 유일 할 수 있는 기본 사상이기도 하다(한혜리, 2012:13).

논쟁과 이슈는 개별적인 사안에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보편적인 논쟁에 무게를 두는 것은 커뮤니티댄스 활동이 단순히 개인 혹은 공동체의 예술 활동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술적 활동이 필요한 사회적 문제와 관심을 인식하고 다른 영역으로 확산, 전이시킴으로써 정책적·제도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의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결국, 커뮤니티댄스는 현재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문제를 예방하는 사회적·치유적 기능으로 의미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참여자들은 공동체 가치를 발견해야 하며 예술적 활동에 참여하고 실천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참여는 예술 형태의 활동을 체험하고 문화적·생태적 대상 및 자원들과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공동체의 논쟁, 이슈를 공유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문화적 실천을 전제로 하는 예술적 활동이 커뮤니티댄스에서의 참여와 실천의 의미이다. 문화적 실천은 외부의 조건에 의지하는 판단과 태도가 아닌 내재적 가치<sup>11)</sup>를 실천하는 행위의 지속성이며 공동체가 갖는 사회적 관심은 참여자 혹은 공동체의 삶의 문제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관계망 형성은 맥락적 지식을 전제로 한다. ecology는 모든 구성원들을 서로 연결지우는 관계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 속에는 상당한 폭의 자율성을 갖지만 그보다 작은 무수한 유기체들이 전체라는 기능 속에서 조화롭고 통일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이 전체의 특성은 그 부분들의 상호작용과 상호의존에 의해 발생된다(Capra, F., 2004:53-55). 이와 같은 관점은 시스템적 사고를 촉진하였다. 근대사회의 유산인 과학조차 객관성에서 인식(epistemic)의 과학으로 전환되었다. 서로 연결된 관계들의 그물망은 그 속에서 특정한 패턴을 ‘대상’으로 식별해 내는 능력은 관찰자와 앎(인식)의 과정에 달려 있다(Capra, F., 2004:64). 오늘 날의 공동체는 원시사회에서의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은 아니다. 이념적이고 이상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공동 선(good)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올바른

11) MacIntyre(1981)는 실천의 가치를 논함에 있어 외재적 가치와 내재적 가치의 차원으로 실천의 의미를 규정한다. 내재된 가치를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는 공동체에 참여하는 개인의 자발성과 참여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결국 참여자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 된 공동체에서 확인하는 문화와 실천은 생활 속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촉매제가 된다. 예술에 참여하는 실천, 그리고 참여의 과정을 통한 탁월성에 도달하려는 행위는 개인의 삶의 목적성에 도달하려는 의지이기 때문이다(황정욱, 2012, 61)

성장을 추구하는 공동체이다. 이와 같은 공동체에서는 관계망 속에 존재하고 있는 대상(자)들 간의 상호작용과 상호의존성을 직시해야 하며 대상을 식별해 내는 인식적 사고가 수반되어야 한다. 사회적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 형평성은 사회적 구조, 제도, 인간관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개인이 속해 있는 공동체는 자연과의 관계망 속에서 공동체가 지향하고 있는 가치의 상호영향 하에 놓여있다. 통합된 전체라는 시스템적 견해는 우리 전통 사회 속에서 공동체의 이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공동체 속에서 사회를 지속시키는 윤리가 바로 공동체 의식이며 이러한 공동체 의식, 즉 생명에 대한 존중과 나눔이 바로 공동체 삶인 것이다. 각각의 개체가 곧 통합된 하나임을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는 어울림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적 의식과 공동체 삶은 생태무용교육<sup>12)</sup>에서 매우 중요한 목표이며 과제인 것이다(오레지나, 2012:44에서 재인용). 에코댄스와 같이 환경의 범위를 생물권으로 넓혀 사회 문제의 원인을 보다 근본적인 곳에서 탐색하고 공동체의 실천적 생활로 해결책을 해결하려는 것(한혜리, 2012:13) 또한 커뮤니티댄스 연구의 한 분야이다.

예술이 생태계의 생물학적 관계를 보여 주듯이 현재 사회가 시도하는 것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관계를 지구 생태계의 생물학적 관계와 유사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말하는 학자(Rikins, J. 2011:321)도 있다(한혜리, 2012:11 재인용).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관점에서 본다면 문화공동체 형성이라는 사회적 형평성을 넘어 생태적 공동체로 형평성의 확장을 꾀하고 있는 커뮤니티댄스와 에코댄스는 무용교육의 실천 방식이 된다. 생태적 가치는 사회 구조와 개인과 개인, 개인과 공동체의 형평성의 문제이자 대칭적인 수평적 구조를 이룰 수 있는 사고의 확장<sup>13)</sup>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한국무용교육원(2012)은 커뮤니티댄스의 실천 규칙을 비경쟁적 무용, 체험 무용, 참여 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유형화된 옳고 그름의 기준이나 판단으로 규정될 수 있는 무용이 아니라 개인의 잠재력 개발에 초점을 두고 관찰과 깨달음, 집중과 명상의 체험이 가능한 무용으로 상호작용, 상호소통,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실천하는 것이다. 제도적으로 협력과 혜택으로 다가서야 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라고 한다면 예술적 체험을 통한 비경쟁적 무용, 체험 무용, 참여 무용은 커뮤니티댄스의 참여와 실천의 원동력이 된다.

12) 에코댄스

13) 상호작용, 상호소통,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 V. 결론

본 연구는 지속가능발전교육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 경제, 환경적 가치에서 문화적 가치가 주목받고 있는 점을 직시하면서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망에 있어 사회적·윤리적 차원의 형평성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문화적 가치가 지지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사회적 의존으로부터 독립된 실존적 존재로서의 삶의 목표를 고양시키는 데에 문화와 예술이 기여할 있다는 믿음에서부터 비롯된다.

인류 공동체적 삶의 문제이기도 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필요성은 인간이 소유로서의 삶에 순응하면서 야기된 다양한 문제들의 해결에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인간의 판단력 결여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 및 공동체, 전통과 현대, 인간과 자연 간의 관계성 단절에서 비롯되었다. 예술교육은 감각적 인지를 통해 인간의 판단력을 향상시키고 다원적 사고를 촉진함으로써 관계성 회복을 꾀한다. 관계성 회복은 사회적 형평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예술적 실천으로 무용교육에서는 커뮤니티댄스가 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발전, 성장, 보전이라는 생태, 환경사회의 핵심적 가치는 외부적 목적에 의해 향상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적 가치의 향상을 통해 성공한 삶의 원천으로 공동체 의식 찾기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가치이다. 이는 그들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는 과정으로 커뮤니티댄스는 제도적으로 형평성의 문제로 접근한다. 그리고 실천에 있어서는 논쟁과 이슈의 사회적 관심에서 문화적 대상의 관계망 구축을 넘어 문화공동체·생태공동체 삶을 살 수 있도록 참여자들의 시스템적 사고를 촉진한다. 따라서 문화공동체 형성이라는 사회적 형평성을 넘어 생태적 공동체로 형평성의 확장을 꾀하고 있는 커뮤니티댄스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실천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에코댄스 또한 이와 같은 맥락과 같은 위치에 있는 커뮤니티댄스의 연구 분야라 할 수 있다.

---

## 참고문헌

김화숙, 전해리, 한혜리, 오레지나(2012), **Community Dance**, 서울: 한학문화.

신동원(2010), “OECD 국가 ESD 실행 체계 및 국가 전략 현황”, 지속가능발전교육(ESD)콜로퀴엄 시리즈, **ESD의 잠재성과 활용성**, 한국유네스코위원회, 2010.12.15,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회의실, 17-31.

정우탁(2010), “DES D 후반기 유네스코 한위 ESD 사업 추진 방안”, 한국유네스코위원회.



- 오레지나(2012), “에코댄스의 구성 원리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 23집 2호**, 37-50.
- 원승룡(2007), **문화이론과 문화철학**, 서울 : 서광사.
- 유명만(2006), **지식생태학**, 서울 : 삼성경제연구소.
- 이병준(2011),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평생학습”, **평생학습도시와 ESD**, 평생교육진흥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1.9.16, 인하대학교 국제세미나실, 3-22.
- 이선경(2010), “ESD를 위한 교수학습 전략” 지속가능발전교육(ESD)콜로키엄 시리즈, **ESD와 교육과정·교수학습 혁신**, 한국유네스코위원회, 2010.6.3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회의실, 65-82.
- 이재영(2011),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예술교육”, **지속가능한 미래와 문화예술교육**,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1.5.28,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소극장, 9-22.
- 이정은(2012), “인정받으면 우리 삶이 달라질까”, **문화, 세상을 풀라주하다**,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 정연희(2007), “미술교육의 문화적 실천을 위한 미술교사 문화역량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한국교육원대학교 대학원.
- \_\_\_\_\_ (2010), “예술교육을 통한 지속가능성 사고의 확장”, 지속가능발전교육(ESD)콜로키엄 시리즈, **ESD와 교육과정·교수학습 혁신**, 한국유네스코위원회, 2010.6.3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회의실, 47-64.
- 한국무용교육원(2012), **커뮤니티댄스란 무엇인가**, 서울 : 영일문화사.
- 한혜리(2011a), “무용의 사회적 개념 연구 - 공동체무용과 교육의 관계”,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 22집 1호**, 17-31.
- \_\_\_\_\_ (2011b), **무용사색**, 서울 : 한학문화.
- \_\_\_\_\_ (2012), “대학 무용교육과 커뮤니티 서비스 학습의 결합 모형 연구-대학 커뮤니티댄스 교육의 학습 설계 기준”,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 23집 2호**, 1-18.
- 황정옥(2012), “커뮤니티댄스의 문화예술교육적 실천 전략”,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 23집 2호**, 51-69.
- Alexander, Victoria, D.(2003), *sociology of the Arts*, 최셋별, 한준, 김은하(역, 2010), **예술 사회학**, 경기 : ㈜살림출판사.
- Capra, F(1996), *the web of life*, 김용정, 김동광(역, 2004), **생명의 그물**, 경기 : 범양사.
- Dewey, J. (1919), *Reconstruction in Philosophy*, 이우선(역, 2010), **철학의 재구성**, 서울: 아카넷.
- Fromm, E.,(1976), *To have or to be*, 차경아(역, 2012), **소유냐 존재냐**, 서울 : 까치 글방.
- Freud, S.(1930), *Das Un Behagen in der Kultur*, 강영계(역, 2008), **문화에서의 불안**, 서울: 지만지.